

‘로스쿨 게이트’

靑 수석 개입·심사 결과 유출 의혹

김신일 교육 '선정 논란 책임' 사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논란이 '로스쿨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결집을 수 없게 확산하고 있는 로스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심의 결과 사전 인지실, 심사 결과 유출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로스쿨 게이트'는 설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5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청와대가 요구한 '1개 광역단체·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이날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기에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의 결과가 공식 발표 4~5일 전에 개별 대학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에 적극 나섰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윤 전 수석의 선거 홍보물이 법학교육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지만, 윤 전 수석의 선거 홍보물 완성 시기는 지난달 27일인 것으로 확인돼 윤 전 수석이 로스쿨 선정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윤 전 수석이 원광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선정되도록 법학교육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박

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윤 홍보수석이 지난달 27일 인쇄 의뢰한 총선용 홍보책자에 원광대 로스쿨 인가 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윤 홍보수석도 원광대를 통해 인가 선정 사실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을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 중 상당수가 특정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거나 관계가 있는 대학들에게 로스쿨 선정과 관련한 동향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한나라당 심재철 부대표도 "윤 전 수석의 홍보물을 보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 할 수밖에 없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설 연휴를 맞아 본격적인 민족대이동이 시작된 5일 밤, 광주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로 고속도로를 통해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족 대이동 시작 고속도로 지·정체

귀성 6일, 귀경 8·9일 가장 혼잡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7일 동안 약 4천684만명(1일 평균 66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후부터 광주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공항 등지에는 설레는 가슴으로 두 손 가득 선물을 안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광주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광주 요금소와 동광주 요금소도 이날 오후부터 귀성차량이 몰리면서 광선C~동광주 요금소 구간 등 일부 구간이 정체되는 혼잡을 빚었다.

이날 하루 동안 호남고속도로·서해안 고속도로·남해 고속도로 등 광주·전남·전북 51개 요금소를 통해 들어오는 귀성차량은 26만5천대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설 연휴기간 호남지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95만대로, 하루 평균 42만1천대 정도로 예상했다.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연휴 전날인 5일 오후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돼 6일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귀성은 이날 오후부터 6일 오전, 귀경은 8일과 9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는 5일간의 긴 연휴로 이어지면서 이동 인파가 설을 기점으로 이틀씩 분산돼 고속도로 정체는 예년보다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오후 5시 현재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간은 4시간20분

▲서울~목포간은 5시간15분이 소요됐다. 도로공사는 귀성이 피크를 이루는 6일 서울~광주간은 7시간50분, 9일 광주~서울간은 7시간 1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에도 이날 오후부터 가족단위 귀성객들이 속속 도착, 고향의 품에 안겼다. 광주역은 설 연휴동안 84편 924량의 정기열차 외에 16편 134량의 임시열차를 추가로 투입, 이날 하루 동안 1만여명의 귀성객을 맞았다.

광주역은 설 다음날인 8일부터 10일까지 3만여명이 열차를 이용,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보고 특별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이날 오후 도착한 3만여명의 귀성객들로 크게 붐볐다.

국내선 항공편은 연휴기간 동안 전 노선이 이미 예약됐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예약취소분을 확인하려는 귀성객들의 문의전화와 잇따랐다.

광주시내 대형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이 인접한 주요 간선 도로를 설 선물과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차량으로 이날 오후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망직업 장학 58만 원의 지원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조선대, '로스쿨' 법적 투쟁 착수

법률지원자문단 구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조선대학교가 로스쿨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과제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선대는 5일 법학대학 교수 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자문단을 구성했다.

(관련기사 3면)

법률지원자문단 교수는 정민수·유언·최두진·이영무·오수원 등 5명. 모두 판·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현장에서 쌓았던 다양한 경험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정민수(64·사시 15회) 교수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유언(65·사시 9회) 교수는 1973년부터 1991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

했다. 최두진(54·사시 24회) 교수는 행정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영무(45·사시 33회) 교수는 광주지법 판사를 역임했고, 오수원(64·사시 24회) 교수는 1985년부터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률지원자문단은 우선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로스쿨 전체 선정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가 로스쿨 심사과정의 모든 서류들을 폐기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조선대는 이미 지난 2일 각 대학의 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로스쿨 원광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조선대 관계자는 "윤 전 수석의 행위에 분개하지만 호남내의 소지적위의로 비추는 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조심스런 입장으로 보였다.

조선대 전호중 총장은 5일 "좌절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직원들에게 보내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았지만 좌절할 수 없다"며 "로스쿨을 개설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설 연휴 광주·전남 날씨 (자료:기상청)

6(수) 구름 많음 -3/3	7(목) 구름 많음 -3/3	8(금) 흐리고 눈 후립 -2/3	9(토) 구름 많음 -3/5	10(일) 구름 조금 -3/6
-----------------------	-----------------------	--------------------------	-----------------------	------------------------

즐거운 설 연휴 맞으십시오

7·8·9일 신문 쉽니다
설특집·극장가·TV가이드 5일자 발행
뉴스 서비스는 Kwangju.co.kr서 계속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946년 호남지역을 주축으로 한 7만 2천 명에 달하는 지역민의 열성을 모아 설립된 조선대학교는 지난 60년간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해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설립 당시 법정대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방대학 최초의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법과대학이며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도 배출한 법과대학입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시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이번 교육부의 예비인가에 선정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발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사전 조정된 법학교육위원이 심사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기준이 여러 차례 갑작스럽게 변경됐던 점도 의혹이 많습니다. '1평역시·도 당 1개교 인가'라는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인구수, 법률 수요와 경제 규모도 고려하지 않은 무원칙한 인가가 행해졌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모든 난관을 뚫고 성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지원이 기반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의 좌절을 시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로스쿨에 진입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단결하여 심기일전함으로써 조선대학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년 2월 6일

조선대학교 구성원 일동